

한전, 나주 이전 10년...지역 경제 발전·상생 앞장

지역인재 1541명 채용·에너지밸리 조성·사회적 경제기업 지원도 2022년 한국에너지공대 개교...창의·융복합 공학인재 446명 육성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10년간 1500명이 넘는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지난해에는 1조원이 훌쩍 넘는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에서 재화·서비스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이 지난 2014년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 뒤 지역인재 채용, 에너지밸리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것이다. 여기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역시 한전이 자리하고 있어 나주에 기틀을 잡아 융복합 인재 양성만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17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4년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했다. 한전에 근무하는 직원은 2000여명으로,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6개 총 직원 7500명의 30%에 달한다. 한전 직원들은 지난 10여년 간 지역 곳곳에 자리잡아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등 지역 활성화, 지역 발전 등에 기여한 바 있다. 더불어 한전은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지역 발전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한전은 중심으로 빛가람혁신도시 인근 4개 권역에 걸쳐 조성된 에너지밸리에 337개에 달하는 에

너지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 36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기술 연구개발(R&D) 및 기술 상용화를 집중 지원하는 등 지역 성장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소재 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인재 유대 등의 상생활동도 펼쳤다.

한전은 지역 재화·서비스를 지난해 기준 1조 239억원 가량 우선 구매했고, 매년 '이전지역인재 채용 우대제도'를 적용해 지난 10년간 1541명의 광주·전남지역 인재를 채용했다.

이 밖에도 광주·전남지역 소재 청년이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연간 1억5000만 원을, 지역 이공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지역인재 장학금 1억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전이 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뒤 매년 개최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산업 엑스포 'BIXPO(빅스포)'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업들의 수출사업 성과에 이바지하고 있다. 빅스포는 지난 10년간 지역 에너지분야 대표 행사로 자리잡고, 관람객 36만1716명을 유입, 지역 기업들의 행사 참여 뿐만 아니라 205백만불 규모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국내 최대 규모 에너지 공기기업인 한전이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켄텍 역시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게 됐다. 켄텍은 지난 2022년 3월 개교해 446명의 창의·융복합 공학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414건, 825억원 규모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54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산학연 클러스터 대학교로 성장하고 있다.

켄텍은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총장도 조만간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켄텍은 최근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차기 총장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했다. 이사회에서 추천 후보 가운데 1명을 선임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총장이 선임되게 된다. 켄텍 이사회가 오는 19일 예정된 만큼, 이번 이사회에서 총장이 확정될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늦으면 내년 1월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 등 공공기관 이전 직후 허허벌판이었던 빛가람혁신도시가 현재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인구가 4만명을 넘겨 가장 많고, 평균연령은 34.2세로 가장 젊은 활기찬 도시로 자리잡았다"며 "한전은 앞으로도 국내 전력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한전KDN, ESG 자문단 회의 개최

자문단 위촉식·전략 방향 논의 등

한전KDN이 지난 12일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 다목적실에서 '2024년 제2차 ESG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ESG 자문단은 한전KDN이 ESG경영 전문자들의 자문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발족했으며, 학계·산업계·법조계·공직 유관단체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기 ESG자문단 위촉식 ▲2024년 ESG경영 주요성과 공유 ▲2025년 주요 전략 추진방향 보고 등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에너지 공기기업으로서 당면한 '글로벌 ESG 기후공시 현황'과 '인공지능(AI) 가속화에

다른 전력사용량 폭증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전력 관리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한전KDN 측은 올해 ESG경영 성과로 ▲ESG경영 내비효과 확산을 위한 ESG WEEK 운영 ▲8년 연속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AI확산에 따른 윤리문제 대응 위한 AI윤리원칙 제정 ▲KDN EVC 충전인프라 CHA-ON 개소 ▲AI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Scale-up 프로그램 등의 실천 등을 보고했다.

이 밖에도 자문위원들은 ESG 공시 의무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RE100 달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구체화 등의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새롭게 위촉된 ESG자문단의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의견 제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식료품 온라인 구매·간편식 소비 늘었다

KREI,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쌀 구입 지속 하락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지난 13일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2024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를 개최했다.

KREI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전국 규모의 식품소비행태조사를 열고, 국민들의 식품소비행태와 식생활 변화 및 식품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조사 분석 결과 '식료품을 주로 온라인에서 구입한다'는 응답자가 9.7%로 전년(4.1%)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들이 식료품을 구입할 온라인 유통 채널을 선정할 때 '가격 수준을 1순위로 고려한다'는 응답이 지난 2020년 대비 10%포인트(p)가까이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한 신속성과 편리성 뿐만 아니라,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격 요인을 중요시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가정식은 줄어들고, 간편식 소비가 지속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석섭취식품을 주 1회 이상 구입하는 가구 비율은 올해 기준 22.1%로 지난 2021년(15.3%) 대

비 6.8%p 늘었고, 같은 기간 즉석조리식품의 경우 16.2%에서 25.7%로 9.5%p 증가했다.

각 가구의 식생활 변화로 인해 쌀 구입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별 아침과 저녁을 거르는 횟수는 1.4회(2021년)→1.8회(2024년) 등 증가세를 보였고, 아침식사로 밥을 먹는 가구 비율은 올해 기준 66.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 쌀을 2-3달에 한 번 구입한다는 응답 비율은 5년 전과 견줘 7%p 감소했고, 즉석밥만 먹어서 쌀을 구입하지 않는 가구 비율은 대폭 증가했다.

KREI 관계자는 "조사 결과 가구원 수가 적은 가구, 가구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쌀 소비 감소현상이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가구의 쌀 구입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한전KPS,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수상

KPS-패러데이스쿨 호평

한전KPS가 지난 13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에서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며, 지난 2012년부터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관·개인을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한전KPS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기부 프로그램들 중 'KPS-패러데이스쿨'이 이번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KPS-패러데이스쿨은 한전KPS의 전력설비 정비 등 전문 분야에 기반해 전국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전KPS는 이같은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비기술 명장 강사진 등 교육 인프라들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현장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등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교육 설비를 활용한 체험 중심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매년 확대 운영하고, 장학 사업과 교보재 지원사업 등도 지속하고 있다.

김흥연 한전KPS 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인프라와 전문역량들을 활용해 학생들이 미래 국가산업의 차세대 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농어촌공사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모집

24일까지...최대 20년 장기 임대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는 24일까지 '2025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스마트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사가 소유한 농지에 비닐하우스 내부에 각종 재해에 강한 환경제어시설, 관수시설, 수평 스크

린, 난방설비 등의 시설들을 설치해 청년 농업인에게 최대 20년간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8-39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을 수료했거나 오는 2025년 수료 예정인 자,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2년 이상 운영한 자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자 등이다.

공사는 이번 모집을 통해 총 12개의 농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경기 양평 2지구, 충

북 보은·진천, 전남 나주, 경북 상주·경주 7곳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하년 해당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시설 영농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2개 농가가 지원을 받았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